

208장 내 주의 나라와

- 1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 2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 3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 4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 5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 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 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 3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 후
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월 13일(수) 기도 담당 : 문현근 장로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08장 다 같 이

기 도 안상천 장로

성 경 봉 독 출애굽기 8:1~32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거짓 역사의 주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42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출애굽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3월 12일(화)	출 8:1-32	거짓 역사의 주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3월 13일(수)	출 9:1-21	바로왕, 왜 그리 완고한가?
3월 15일(금)	출 10:1-20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3월 12일 (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아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132년 전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를 통하여 저희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이제 새성전이 완공되어 입당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바지 입당준비가 세밀하게,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도 미진한 제반사안들은 입당 후에 하나하나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건축재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님께 지혜와 권세를 더하셔서 새성전 시대에 새문안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일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받은 바 소명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교회의 중책을 맡겨주신 장로님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에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고, 이 자리에 나아와 엮드린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망각되고, 미련하고 오만한 인간들의 방자함이 작금의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듯합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서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를 주창하지만 다시금 핵실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북한의 궤계를 도말시켜,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